

## 붙임 1

## 일본뇌염 개요

정의	· 일본뇌염 바이러스(Japanese encephalitis virus) 감염에 의한 질환						
질병 분류	· 제3급 법정감염병						
병원체	· 일본뇌염 바이러스(Japanese encephalitis virus)- family <i>Flaviviridae</i> genus <i>Orthoflavivirus</i>						
병원소	· 사람, 돼지, 야생조류						
매개체	· 주로 집모기류( <i>Culex</i> spp.) - 작은빨간집모기( <i>Culex tritaeniorhynchus</i> ) - 주로 돼지가 증폭숙주(amplifying host)로서의 역할						
전파경로	·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 - 사람이 감염된 초기에는 모기를 감염시킬 만큼 충분한 바이러스혈증이 발생하지 않음						
잠복기	· 5~15일						
증상	· 대부분 무증상이거나,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임상 증상이 나타남 ·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, 발작, 목 경직, 착란, 떨림, 경련,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20~30%의 사망률을 보임 · 합병증: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~50%는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음						
치사율	· 뇌로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, 이중 20~30%는 사망할 수 있음						
실험실 검사	· 확인 진단 - 검체(혈액, 뇌척수액)에서 Japanese encephalitis virus 분리 -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- 검체(혈액, 뇌척수액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· 추정진단 - 검체(혈액, 뇌척수액)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						
치료	· 대증치료						
환자 관리	· 환자 관리: 표준주의 · 접촉자 관리: 필요 없음						
예방접종	<p>· 소아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일본뇌염 소아 접종 실시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불활성화 백신</td> <td>총 5회 접종 · 1~2차(생후 12~23개월, 1개월 간격) · 3차(24~35개월, 2차 접종 11개월 후), 4차(6세), 5차(12세)</td> </tr> <tr> <td>약독화 생백신</td> <td>총 2회 접종 · 1~2차(생후 12~35개월 내 12개월 간격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· 성인: 면역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- 위험지역(논, 돼지 축사 인근)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-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,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-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실험실 근무자</p>	구분	일본뇌염 소아 접종 실시기준	불활성화 백신	총 5회 접종 · 1~2차(생후 12~23개월, 1개월 간격) · 3차(24~35개월, 2차 접종 11개월 후), 4차(6세), 5차(12세)	약독화 생백신	총 2회 접종 · 1~2차(생후 12~35개월 내 12개월 간격)
구분	일본뇌염 소아 접종 실시기준						
불활성화 백신	총 5회 접종 · 1~2차(생후 12~23개월, 1개월 간격) · 3차(24~35개월, 2차 접종 11개월 후), 4차(6세), 5차(12세)						
약독화 생백신	총 2회 접종 · 1~2차(생후 12~35개월 내 12개월 간격)						

**Q 01 일본뇌염은 어떤 질병이며, 어느 지역에서 발생합니까?**

- A** -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전파되는 질환입니다.  
-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국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.

**Q 02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얼마 후에 증상이 나타나나요?**

- A** -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5~15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며,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.

**Q 03 일본뇌염의 증상은 무엇인가요?**

- A** - 초기 증상은 무기력증과 발열이며 종종 두통, 복통, 메스꺼움, 구토 등을 할 수 있으며, 뇌 징후, 뇌신경 마비, 인지 및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파킨슨 증상과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.  
- 일부에서 고열, 발작, 목 경직, 착란, 떨림, 경련,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, 이 중 20~30%는 사망할 수 있습니다.

**Q 04 일본뇌염은 어떻게 진단하나요?**

- A** - 혈액 또는 뇌척수액 검체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*Q 05 일본뇌염의 치료법은 무엇인가요?**

- A** - 일본뇌염에 대한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합니다.

질병관리청

## 일본뇌염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

질병관리청

## 일본뇌염 매개모기 특성

-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습니다.
- 겨울철 돌미나리나 갈대숲에서 월동 후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최초 출현하여 8~9월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.
-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, 웅덩이에 서식하고 야간에 흡혈활동을 합니다.

질병관리청

## 일본뇌염 예방백신

-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,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(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.
- 또한 ①는,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②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(유료)을 권장합니다.

질병관리청

## 일본뇌염이란?

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, 야생조류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, 사람간 전파는 없습니다.

질병관리청

## 일본뇌염 주요 증상

- 매개모기에 물린 후 5~15일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.
-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, 발작, 목 경직, 착란, 경련,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~30%는 사망합니다.
-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~50%는 손상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.

\* 합병증 : 인지장애, 마비, 운동장애, 언어장애, 발작, 정신장애 등

질병관리청

## 모기물림예방수칙

야외 활동 시

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, 풀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해주세요.

노출된 피부나 옷, 신발상단,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주세요.

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.

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.

가정 및 주위환경

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.

집주변의 물 웅덩이,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주세요.